다산포럼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가 거점대학

주윤정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앞으로 12·3 계엄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국방·안보·복지·환경·사회·노동·문화 등 모든 단위 과제의 구체적 비전과 전략 체계를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가 복귀했듯 윤석열도 다른 얼굴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현재 대학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대학 본연의 기능과 미래 사회에서 대학이 수행할 역할을 간과한 근시안적 시각과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 회복력 차원에서 대학은 첫째, 한국 사회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둘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클러스터라는 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우선, 이번 12·3 계엄 사태는 한국 사회 엘리트가 일반 시민과 얼마나 단절돼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폐쇄적 네트워크 안에 갇힌 이들은 계엄이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 안에서 빚어진 망상을 실제로 실행했다.

계엄 저지에는 시민의 저항과 군인의 불복종이 기여했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또한 결정적이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이미선 재판관은 부산대 법대 출신의 향판으로 평생 부산과 창원 등지에서 근무해 다른 삶의 감각을 지녔다.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리더십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서울대만이 아니라 국가거점대학 전반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소수 엘리트의 합법적 부패와 망상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지방 소멸 문제는 기존 SOC 투자나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선거 때마다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되풀이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지역 정주율과 혁신으로 이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김해공항과 KTX는 특히 주말과 주초에는 서울-부산을 오가는 공기업 임직원들로 항공편과 열차편이 만석이다.

또한 지역에는 일자리, 특히 젊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인권 규범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가부장적 문화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형성된 폐쇄적 연고 네트워크에 여성은 진입하기 어렵다.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최근 한 연구는 거주지 인근 대학에 다니고 그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이 혁신 클러스터로 기능해 지역의 기준점을 높이면 지역 정주율·출산·교육·지역경제는 물론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까지 상승할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매직'이다. 부산대 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과 혁신 클러스터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대학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GRDP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성장할 기회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본연의 기능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자체도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처참하다. 수도권에 부는 집중돼 있고 내란 엘리트를 길러낸 서울대와 부마 민주항쟁의 출발지인 부산대 사이의 교육비 격차는 크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000만원이라면 부산대는 2600만원에 불과하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는 서울대 12.69명, 부산대 20.03명이다. 총교육비 역시 서울대 1조7000억원, 부산대 7000억원으로 격차가 크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투자와 예산 지원으로 이 격차를 해소해야 한국 사회의 왜곡된 엘리트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대학중심 혁신경제모델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

회복력은 충격 이후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고 충격을 계기로 더 나은 상태로 변혁되는 과정, 즉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를 수반해야 한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력의 새로운 경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기 고

불안감보다 축산물에 대한 믿음 필요할 때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어느 덧 한 달이 지났다. 방역 당국과 농가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확산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축산 현장에서는 완전한 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

다행히 "구제역 발생이 곧 식탁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가축 전염병과 식품 안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반복하여 알리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먹어도 된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축산물을 먹어도 되는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오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통과 소비에까지 영향을 준다. 지난 3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영암의 한 축산물 판매장은 소고기 판매량이 구제역 발생 전주 대비 약 15% 줄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지난 2015년 '가축질병에 대한 인식과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에서도 '2014년 구제역 발생 때 소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을 줄였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48.3%와 47.4%였다.

그 이유로는 구제역 바이러스로 인한 인체 감염 우려가 육류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는 구제역을 사람과 짐승이 같이 걸리는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국 동식물방역청(APHIS)에서도 "사람에게 구제역이 감염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PH 6.0 미만 또는 PH 11.0 이상에서 빠르게 사멸되고 섭씨 56도에서는 30분, 76도에서는 7초에 사멸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고기를 익히는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충분히 사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축산물은 유통 전·후로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친다. 한우는 도축 전에 수의사의 임상 검사, 도축 후 식육감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유통되지 않는다. 우유도 마찬가지다. 젖소에서 착유된 생우유는 유가공장에 도착 후 세균 수, 체세포 수 등 품질 검사를 받고 저온 살균(섭씨 70도 이상) 또는 고온 살균(130도 이상) 과정을 통해 병원성 세균을 완전히 없앤 뒤 시중에 유통된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검증을 거친 결과들이 있음에도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축산농가를 넘어 육가공업체, 정육판매점, 식당, 유통업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 농·축협은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검역과 위생관리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유통하겠다. 그러니 소비자는 구제역으로 생긴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한다.

끝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모든 축산 농가 여러분께 위로를 전하며 구제역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 고

디지털 배우는 농촌 어르신들

김동환
㈜농업회사법인 구례삼촌 대표

도시에서 30여 년을 직장인으로 살아오다 귀촌해 작은 농업회사를 운영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다. 그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고 함께 일도 했지만 최근, 구례군에서 마련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큰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가졌다. 솔직히 도시에서 살던 시절, 그리고 이 교육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농촌의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나와 비슷한 편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시골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종종 아날로그적이고 변화에 둔감한 이미지가 따라붙곤 한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단숨에 깨트렸다. 어르신들은 이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했고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앱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과 적극적인 태도였다. 낯선 기능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저 없이 질문하고, 메모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 학생들을 보는 듯 했다.

교육 중간, 휴식 시간에 몇몇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한 어르신은 "복지회관에 가면 이런 재미와 기쁨이 없는데 이곳에서 교육을 받으니 하루가 참 즐겁고 좋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 말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이곳이 어르신들에게 소통과 성취의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배운 디지털 활용 능력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작지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민이나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았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며 기대 어린 공감을 표현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어르신들도 스스로 지역 사회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농촌 어르신들의 실력을 펼칠 무대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판매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어르신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손으로 키운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가공품을 소개하는 일은 단순한 판매 이상의 자부심을 안겨줄 것이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로 지역을 소개하고 손수 가꾼 농산물과 가공품을 이야기와 함께 전한다면 소비자들은 상품을 넘어 '사람과 삶'을 구매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진솔한 설명은 때로는 어떤 광고보다도 진정성이 있고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활동이 확산된다면 농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발전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지역을 소개하고 사람과 상품을 연결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 과정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브 방송 초창기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지역의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으로 촬영, 편집 등에 관해 안내해 준다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농촌 공동체를 한층 끈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협업은 농촌이 가진 고유의 따뜻함과 가족 같은 정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탄생하는 기회가 될 지도 모른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 인력 부족, 농산물 유통 문제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어르신들의 디지털 도전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소중한 단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이 어르신들의 교육과 실습 기회를 꾸준히 지원해 준다면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농촌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社 說

'노쇼 사기' 안이한 대처에 자영업자 두번 운다

음식점 등에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올해 들어 38건의 피해가 접수됐는데 4월에만 31건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일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군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80인분을 주문받았지만 결국 노쇼 사기로 확인되면서 울자 겨자먹기로 인근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기부했다. 14일에는 북구 운암동에서 초밥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군 간부를 사칭한 남성이 초밥 119만원어치를 포장 주문 후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노쇼 사기꾼들은 주로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본부 등 기관을 사칭, 위조된 공무원증이나 공문서 등을 제시하며 자영업자들을 안심시킨다고 한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자영업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법인카드로 현장 결제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선입금 요구를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의심을 하면서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골목상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처럼의 대량 주문을 포기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노쇼 사기범을 한 명도 잡지 못한 광주경찰청이 뒤늦게 노쇼 피해 특별경보를 내려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유사 사례나 범행 수법 및 특징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 예방이나 확산을 막지는 못할 망정 '알아서 주의하라'는 식의 캠페인식 주의보만 발령한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은 물론 사기범 근절에 나서야 한다. 자영업자들도 주문이 들어올 경우 예약금을 설정하고 주문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꺾이지 않는 광주FC의 위대한 도전 응원한다

시민 축구 구단 광주FC의 위대한 여정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막을 내렸다. 광주FC는 지난 26일 사우디 알 힐랄과의 8강전에서 0-7로 대패했지만 광주시민들과 팬들은 위대한 도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염원하고 있다.

'유럽연합팀'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의 쟁쟁한 선수진과 5만명에 가까운 사우디 홈팬의 응원속에 치러진 경기라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차원이 다른 경기력 차이로 인한 대패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움을 자아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광주FC의 지금까지의 여정은 위대했다고 평가할만 하다. 일본 요코하마를 상대로 7-3 대승으로 스테이지 리그를 시작했고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선 3골 차 뒤집기 승리로 기적같은 8강 티켓을 거머쥐었다. K리그 시도민 구단 가운데 처음으로 AFC 8강 진출팀이란 새 역사도 썼다.

이정효 감독의 용병술과 무명 선수들의 열정이 빚어낸 기적과도 같은 여정이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민구단이면서도 '공격 축구'라는 광주FC의 정체성을 아시아 무대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점도 성과라면 성과다.

이 감독은 8강전 패배 후 "작은 꿈에서 시작했다. 확신이 의문으로 바뀌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선수들이 확신을 가졌는데 이번 패배로 또다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안타깝지만 다시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민구단의 한계를 넘어 광주의 축구 바람을 키우고 싶고 좋은 기업의 후원도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광주는 야구도시이지만 광주FC가 있어 축구도시로도 손색이 없다. 광주시와 시민들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고 좋은 기업의 후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꺾이지 않는 광주FC의 위대한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한다.

無 等 鼓

철쭉 소식

4월 초만 하더라도 쌀쌀하더니 하순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볼 수 있었던 벚꽃과 복사꽃, 개나리 등 봄꽃은 이제 볼 수 없게 됐다.

농경민족인 우리는 계절의 흐름을 24절기로 판단하지만 정서상으로는 활짝 핀 꽃을 보고 나서야 계절을 실감한다. 산야에는 무수한 꽃들이 있지만 대부분 봄과 여름에 주로 핀다.

봄은 꽃과 함께 온다. 순환하는 사계절 가운데 봄의 준비단계는 겨울이고, 겨울의 끝에서 시작해 봄까지 이어지는 꽃이 동백꽃임을 감안하면 첫 번째로 피는 봄꽃은 동백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 매화가 피고 이어서 산수유가 뒤따른다. 3월 들어서는 목련꽃, 개나리, 진달래가 차례로 피어나고 마지막으로 벚꽃이 만개한다. 물론 이들 꽃은 지역이나 장소, 생육 조건에 따라 피는 순서가 다르기도 하다.

이들 대표 봄꽃 외에 봄의 끝과 여름의 시작점에 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철쭉이다. 철쭉은 봄꽃들이 대부분 떨어진 4월 하순 피기 시작해 지역에 따라서는 6월초까지 산과 들은 물론 도심, 아파트 화단까지 점령한다. 24절기 가운데 여름을 알리는 입하(立夏)가 양력 5월 6일 무렵인 점을 감안하면 철쭉의 역할은 봄을 보내고 여름을 부름이 명확하다. 이를 증명하듯이 철쭉은 꽃이 지고 나면 잎이 한층 무성해져 신록이 더해지고, 기온이 올라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앞서 거론한 꽃들 가운데 철쭉과 진달래는 구분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다. 생육 장소만 놓고본다면 아파트에 피는 것은 모두 철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진달래는 철쭉보다 한 달가량 먼저 피며 꽃이 피고 진 뒤에 잎이 나는 즉 잎과 꽃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사화의 한 종류이다. 하지만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피며 꽃이 떨어지면 녹음이 더 짙어진다. 특히 진달래꽃은 연분홍으로 화전의 재료로 쓰는 등 먹을 수 있으나 철쭉은 진한 분홍이나 주황색으로 색이 강렬하며 독성 탓에 먹을 수 없다.

호남과 영남의 대표 철쭉제가 5월초 보성 일림산(3~5일)과 합천 청매산(1~19일)에서 열린다. 철쭉이 한창이니 여름이 코앞이다. /채희종 디지털 본부장 cha@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